

특히 그들은 팀원들 간의 돈독한 우애와 학문적 동반자를 만났다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한다.

또 한 그룹 ‘Star wars’는 사회과학대학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학부제로 인해 특정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1학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이 팀의 5명의 학생들은 전재성 교수의 ‘국제정치학개론’ 과목의 방대한 원문 텍스트에 놀라 스터디 그룹 결성을 결심하고 ‘스터디 그룹 공모’에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원서를 번역하고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에 만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1학년 학생들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스터디 그룹 운영 보고서를 매우 충실히 계출하였으며, 담당 과목 교수에게도 매우 사랑받았다는 자랑이 있었다. ⑤

교육 프로그램

스터디 그룹을 통해 얻은 것

박진광*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08학번, 우수 스터디 그룹 ‘Star wars’
조장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얼떨떨하다. 1학년들로만 구성된 팀이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말이다. 다시 한번 우리 팀이 했던 것을 살펴보아도 그런 상을 받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스터디 그룹 진행을 정리해보고 또 크게는 1학년들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줄필이나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서울대저널』 기자로서 CTL에서 주최하는 서울대-케이오 기주쿠대학 공동 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CTL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CTL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1학년생인 나에게도 접근 가능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었다. 그리고 그 팀에 알맞은 강의를 골랐다. 우리 팀의 경우에는 그룹 스터디를 하기로 한 이후에 강의를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강의는 ‘국제정치학개론’이라는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팀색 과목이었다. 1학년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원서를 사용하는 이 수업은 수강생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룹 스터디라는 것을 구상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 내가 제안했던 CTL의 스터디 그룹 지원 프로그램은 안성맞춤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했다.

그 당시 친구들은 CTL이라는 기관 자체를 잘 몰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스터디 그룹 지원 제도를 몰랐다면서 프로그램 마감 이후에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점차 CTL과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최 측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 추진하는 리더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팀원들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룹 스터디 초기부터 깨달았다. 스터디 그룹 진행 계획서를 어떻게 짜야 할지 잘 몰라 헤맬 때 한 팀원이 몇 시간에 걸쳐 짜주기도 했고 1학년이 이런 프로그램에 신청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는 주위로부터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를 받기도 했다. 이는 우리 팀이 선정된 이후에 그룹 스터디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팀원들의 열정과 그 중요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히 해주었던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리더만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다보니 리더만의 분명한 역할이 존재했다. 어떠한 판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일. 이것이 리더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룹 스터디를 할 공간을 마련하고 스터디 준비 사항을 체크하면서 공지를 해주는 것이 내가 했던 가장 큰 업무였다. 우리 팀은 두레문예관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곳은 시설이 좋지만 예약이 항상 미리 차 있어서 경쟁이 심한 곳이다. 좀 더 좋은 스터디 판을 벌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미리미리 예약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그룹 스터디를 두레문예관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리 보고서만큼은 항상 내가 그날 바로 썼다. 그 덕택에 보고서만큼은 한번도 미루지 않고 기한에 맞추어서 낼 수 있었다(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스터디 그룹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깔끔한 스터디 판의 마무리였던 셈이다. 만약 스터디 공간의 예약과 보고서 작성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면 그 렇게 부드럽게 그룹 스터디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스터디 판을 열

어주고 닫아주는 일.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스터디 팀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능력을 발산하게 해주는 일. 그것이 리더가 해야 했던 일이고 나름대로 잘 해냈다고 자평하고 싶다.

한 가지 CTL의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스터디 그룹 지원 프로그램에 교수님과의 면담이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점이다. 1학년으로서 대학 교수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과는 달리 너무나도 멀리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 팀은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은근슬쩍 교수님과의 면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몇몇 팀에서 면담 후기를 올리기 시작하자 우리 팀도 위기감을 느꼈고 황급하게 교수님과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대만족이었다. 사실 우리들은 그 당시 이 과목에 회의를 느끼고 또 지쳐가고 있었다. 국제정치의 전반을 다루기에 그 양이 매우 방대했고 매주 부과되는 과제는 다소의 매너리즘마저 느끼게 했다. 이럴 때 교수님과의 면담은 정말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현재 국제정치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고, 말미에는 교수님의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답답하게 얹매여 있던 수업 커리큘럼에서 교수님과



의 면담은 비타민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면담은 종강 후에 자유로울 때 만나곤 하셨지만, 교수님의 바쁜 일정과 출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우리 스터디 구성원들은 1학년이고 이미 같은 반 친구로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최종 보고회 때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팀 구성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오히려 비효율적인지는 알 수 없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친밀하기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때때로 깊은 토론까지의 진행이 가능했지만 그 자유로움이 가끔씩 잡답 등 방종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CTL에서는 지난 2회에 걸친 스터디 그룹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쌓인 자료와 보고서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스터디 그룹 구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올 06학번 새내기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다. 1학년들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 하라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이다. 그러나 1학년생들은 대부분의 과목을 같이 듣는다. 그 중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다면 지원 내용이 매력적이고, 어차피 해야 하는 공부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새내기인데…… 하면서 망설여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사실 나도 한 팀원과 함께 첫 모임에 나갔을 때 대부분 3, 4학년 선배들이어서 주눅이 들기도 했었고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면서 은근히 부담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절대적 기준에서의 질하고 못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학년생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기회가 되고 뜻이 있다면 꼭 신청 하길 당부 드린다.

부족하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의 스터디 그룹 'Star wars'의 진행을 정

리해보았다. CTL에서의 물질적 지원도 받았고 학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큰 것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진 집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 또 거기서 얻은 보람과 자신감을 팀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학기의 스터디 그룹 경험은 앞으로 해나갈 전공 공부에서도, 또 인생에서도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5